“고려 읍치 사찰 전형…사적 가치 충분”

주목! 이 논문

고려시대 읍치(邑治) 사찰의 전형, 안성 봉업사지

안성 봉업사는 고려 태조 왕건의 진영이 봉안됐던 진전사찰이었다. 최근 사적으로 지정된 봉업사지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11월 7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정요근 서울대 교수는 ‘고려시대 읍치(邑治) 사찰의 전형, 안성 봉업사지’를 통해 읍치 사찰로서 면모를 조명했다. 이 논문을 정리 ·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고려시대 봉업사는 왕실의 진전사찰이자 읍치 사찰로 역할을 해왔다.

문헌 기록 통해 본 봉업사

봉업사가 확인되는 대표적인 문헌 기록으로는 〈고려사〉를 들 수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안동에 피난했던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죽주의 봉업사를 들러서 그곳에 있던 태조의 진영을 배알했다고 한다. 그 시점은 공민왕 12년(1363년) 2월이었다. 봉업사에 관한 문헌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봉업사가 태조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 흔치 않은 지방 사찰이자 공민왕이 직접 방문한 사찰이라는 점에서, 봉업사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강조됐다. 한편 조선 전기에 편찬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봉업사는 비봉산 아래에 있으며, 청주를 떠난 공민왕이 이곳에 들러 태조의 진영을 참배하였으나, 사찰은 사라지고 석탑만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조선 초기 어느 시점에 봉업사는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죽주는 오늘날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 일대를 관할 영역으로 편제된 고을이다. 죽주의 읍치 지역은 오늘날 죽산리에 있었으며, 봉업사지 또한 죽산리에 그 터가 있다. 사역의 핵심 공간에는 현재 봉업사지 오층석탑과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1997~1998년과 2000~2001년에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봉업사지 1~2차 발굴조사에서는 명문 기와로 분류된 기와의 개체수가 514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수의 명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그중에는 태평흥국(太平興國, 976~984년), 준풍(峻豐, 960~963년), 옹희(雍熙, 984~987년), 건덕(乾德, 963~968년) 등의 연호가 새겨져 있는 기와가 다수 확인되어, 고려 초기 광종 연간(949~975년)에서 성종 연간(981~997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건물이 건립되었음이 밝혀졌다.

명문 기와 중에 가장 연대가 윗 시기로 올라가는 사례는 대중(大中) 8년명 명문 기와이다. 대중 8년은 신라 문성왕 16년(854년)에 해당하므로, 대중 8년명 명문 기와의 발견은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를 중심으로 한 봉업사의 창건 연대를 통일신라 때까지도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華次寺’(화차사)가 새겨진 신라 하대의 명문 기와와 같은 시기의 목탑지 및 금당지의 흔적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오층석탑 일대의 중심 사역은 신라 때도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차사’는 당시 그 사찰의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후 고려 건국 이후 광종 연간 즈음에 오층석탑 일대에 대대적인 사찰 건축의 흔적이 확인된다. 사실상 새로운 사찰의 창건으로 여겨지며, 이것을 봉업사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광종 때 건축 당시에는 새롭게 금당이 들어서고 그 앞에 오층석탑이 세워졌으며, 기존의 금당지에는 강당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층석탑 일대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 중에는 성종 연간(981~997년)에 해당하는 유물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서, 광종 연간 이후에도 성종 연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찰이 증축 또는 개축됐음을 알 수 있다.

봉업사의 추정 진전구역은 오층석탑이 위치한 중심 사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모두 7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각 건물지는 중심 축선이 중심 사역의 건물지들과 일치하였다. 이곳에서는 화차사와 능달 등이 새겨진 명문 기와, 그리고 준풍, 건덕 등의 연호가 새겨진 명문기와 등이 확인되었다. 청자 등 출토 유물을 고려하면 고려 후기까지도 사용된 건물지로 판명되었다. 다만 주변부로 조사가 추가로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공민왕 찾아와 태조 진영에 참배
고려 왕실 진전사찰로서 위상 커
교통요충지 죽주 邑治사찰 역할도
客司, 비보사찰로도 활용 추정돼

봉업사는 고려 초기보다, 구체적으로는 광종 연간에 창건됐고, 이후 크고 작은 중건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업사지에서는 신유(辛酉), 무오(戊午), 병진(丙辰). 기사(己巳), 갑술(甲戌) 등의 연도가 실려 있는 명문 기와들도 출토됐으나, 그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태조 진전사원으로서 기능도 광종 연간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진전구역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진전구역의 구조와 배치가 어느 정도 드러났으며, 진전구역의 창건 시기도 광종 연간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영이 모셔져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주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봉업사를 진전사원으로 설정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지역 차원에서 진영을 둔 사찰로 운영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봉업사는 고려 광종 연간에 현 봉업사지 일대를 중심으로 창건된 큰 규모의 사찰로서 운영되다가, 조선 전기 어느 때 폐사된 사찰로 이해할 수 있다. 봉업사지는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통일신라 때는 사찰의 명칭이 봉업사가 아니라 화차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작 연대가 8~9세기로 여겨지는 출토 기와에서 화차사 명문이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읍치 사찰의 전형

봉업사는 태조 왕건의 진영을 모신 진전사원이자 죽주의 토착 향리 세력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 사찰이다. 그와 같이 뚜렷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부족한 문헌 사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문헌을 통하여 봉업사의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사역의 범위나 건물의 배치 등은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한계 속에서도 고려시대 읍치 사찰로서 봉업사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고려한다면, 봉업사지는 충분히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지닌 유적이다.

읍치 사찰과 관련해서는 고려시대 읍치 경관에 관한 근래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고려시대 지방 고을 읍치 공간의 주요 경관 요소로 고을의 핵심 공간에 해당하는 관아와 객사, 읍사 등을 먼저 들 수 있고, 그 외에 향교, 읍성, 읍치 배후성, 읍치 사찰, 노거수(老巨樹), 역참, 원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핵심 공간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고을들은 최근까지 또는 현재도 해당 위치에 공공시설이 자리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여말선초에 혁폐됐거나 조선시대 또는 식민지 시기에 읍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고을의 경우에는 고려 때의 주요 경관 요소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미 도회지로 변모한 지역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그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작은 규모의 고을에서는 마을 이름으로나마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고려시대 죽주는 한반도 중부 지역의 주요 중심지인 남경과 충주 사이를 연결하는 간선교통로의 경유지에 있었던 고을이다. 조선의 죽산도 도읍인 한양과 충주 사이를 연결하는 간선교통로의 경유지에 해당했다. 이 교통로는 충주를 지나 경상도 방면으로 연결되는 주요한 교통로였다.

고려시대에는 고을 읍치 공간에 불교사찰이 위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조선시대와의 큰 차이점이다. 수도인 개경의 내부에도 수십 개의 사찰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지방 고을의 읍치 일대에 다수의 사찰이 건립된 점 역시 지극히 정상적이다. 지금도 지방의 옛 고을 읍치 터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석탑이나 불상 등 불교 유물이 남아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 유물들이 있던 장소가 바로 읍치 공간에 있었던 사찰에 해당한다.

이 사찰들은 신앙 공간으로서 본연의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여행객을 위한 숙식 제공의 기능도 그중 하나였다. 그 밖에도 고을 차원의 각종 불교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기도 했다. 또한, 고을 읍치 지역의 지세나 자연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裨補)의 기능이 부여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려시대에는 고을 읍치 내부 또는 읍치와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불교사찰이 건립됐으며, 이와 같은 사찰들을 읍치 사찰 또는 도회지 사찰로 지칭할 수 있다.

죽산 지역에는 읍치 사찰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오층석탑과 당간지주가 남아있는 봉업사지는 관아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 봉업사는 고려 태조의 진영(眞影)을 보관한 진전사원이자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을 갔던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주를 지나 태조의 진전에 참배했던 곳이다.

입지적인 면에서 봉업사지는 읍치의 핵심 구역과 가까이 위치한 전형적인 읍치 사찰로서, 하천 범람에 방비하기 위한 비보사찰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죽산천 북안에 위치하여 죽산천의 범람으로부터 죽주 읍치 지역을 방비하는 기능을 지닌 사찰이다. 읍치 사찰의 상당수가 하천에 위치해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읍치 지역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감안하면, 봉업사지는 그러한 입지를 지니면서 현재 그 면모가 잘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아도, 현존하는 고려시대 읍치 사찰 유적의 전형으로서 봉업사지만큼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역의 범위와 내부 구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더욱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요근 서울대 교수

불기 2569(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갑진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9(2025)년 을사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